스마트안경·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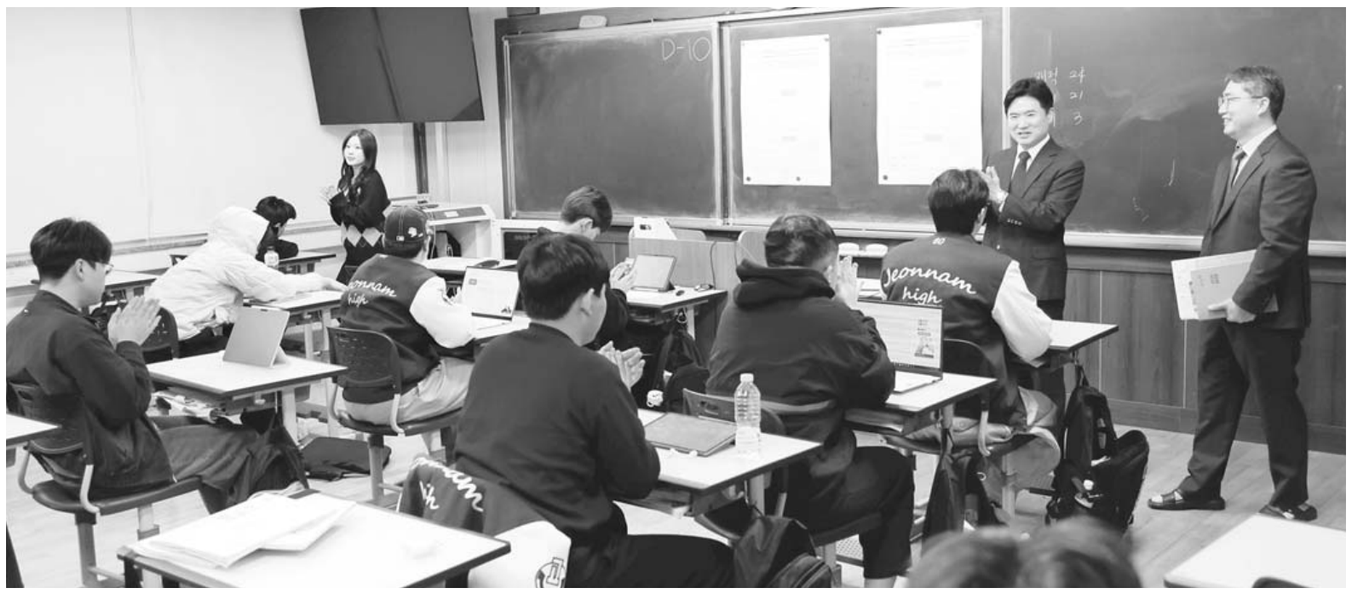
수능 D-9…수험생 유의사항

교육부, 적발시 시험 무효…형사 고발도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내년 응시 제한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 작성해야





김대중 교육감, 고3 수험생 응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흘 앞두고 전남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수험생과 담임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은 기간 건강 관리와 마무리 학습에 힘써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교육부는 9일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통해 "수능 시험장에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 이어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 측정기 등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와야 한다. 신분증은 유효 기간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이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된다.

답안지 기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수험표 뒤 제공되는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종료령이 치고 나서 문답지 회수 전 가채점표를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 요령에 따라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 기자

중3 학부모에 '고교학점제' 정보 제공

전남광주교육청, 300여명 대상 설명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9일 "지난 7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광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예비 고교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고교학점제의 이해 ▲고등학교 선택과목·학교생활 설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입 준비 방향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 고등학교 진학 준비 과정에서 알아야 할 과목 선택 기준과 진로·학업 설계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정원미 중등특수교육과장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교육 과정과 대입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학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차이나센터 '내가 본 광주' 사진공모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차이나센터가 주관하는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가 본 광주 사진공모전'이 개최된다.

'제12회 광주중국문화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된 공모전은 광주 거주 중국인(유학생, 근로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2026년 1월1일 이후 광주에서 본인이 촬영한 미발표 사진이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광주차이나센터 홈페이지(www.gwangjucfc.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진 작품 등 제출 자료를 18일까지 이메일(gjcc6688@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디지털 교육환경 대응 '2030교실' 광주서도 운영

유·초·중·고·특수학교에 70실 구축

'AI 활용 학생 맞춤형 수업' 등 기대↑

전남광주교육청, 이달 하순까지 공모

전남지역에서 운영돼 호평받았던 '2030교실'이 광주에도 조성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9일 "최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27학년도 중등 2030교실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지역 운영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030교실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학습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교실 공간과 수업 방식을 함께 바꾸는 미래형 교실이다. 수업 형태에 따라 학습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광주지역 조성 규모는 유치원 6실, 초등학교 26실, 중·고등학교 36실, 특수학교 2실 등 총 70실이다.

2030교실은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는 '기본형' ▲교사 개인의 수업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기존 미래형 교실을 2030교실로 전환하는 '전환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유치원 6실은 모두 기본형으로 조성되며 초등학교는 기본형 18실, 맞춤형 8실로 구축된다.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기본형 8실, 맞춤형 5실, 전환형 25실 등으로 운영된다.

각 교실의 '2030수업교사'는 공개수업과 수업연구회 등을 통해 수업 사례를 동료 교사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수업 개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251실(2025년 133실, 2026년 118실)의 2030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지역도 내년에 130실(유아 30·초등 40·중등 40·AI교실 20실)을 추가 조성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11월 하순까지 2030교실을 공모하는 한편,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 방문, 수업교사 면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고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30교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 방향,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유·초등학교 설명회는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정원미 중등특수교육과장은 "2030교실은 단순히 교육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꿈꾸는 수업을 실현하는 수업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설명회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나누고 광주지역 학교마다 고유한 색깔을 지닌 2030교실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